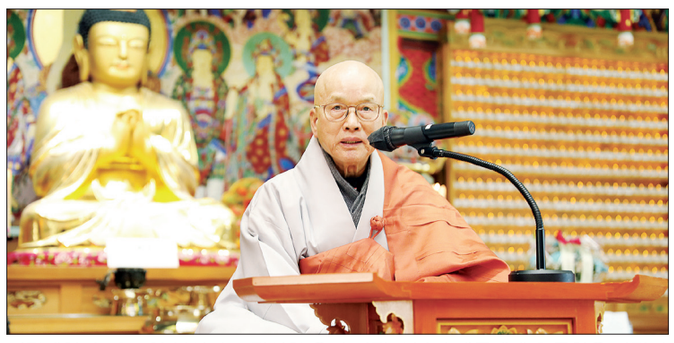
“다시 수행으로”…봉선사 80일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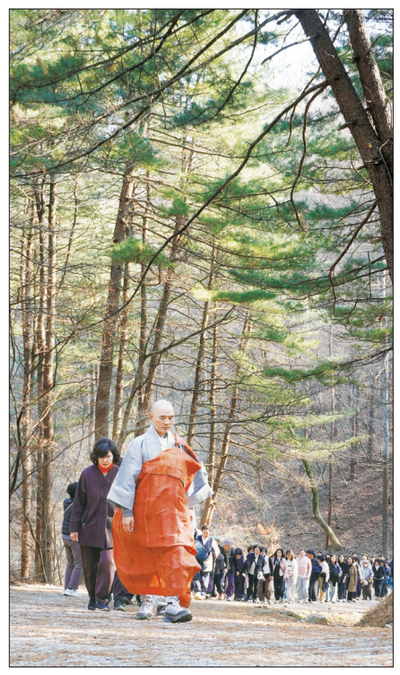

반결제일인 2월 7일 봉선사 보림선원 유나 의정 스님이 대중에게 화두첩을 전달하고 소참법문을 했다.


동참 대중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청풍루에서 참선정진을 했다.


정진하는 대중들(왼쪽)과 회향식에서 소감 나누기를 하는 모습.




봉선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80여 일 동안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동안거 참선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정진 모습.


매주 토요일에는 광릉숲 6km 구간을 걷는 묵언 명상이 진행됐다.


2월 28일 열린 동안거 참선정진 회향식.

봉선사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동안거 참선정진’

호산 스님 “대중과 함께 정진”
12월 9일 입재…매일 저녁 참선
매주 토요일 광릉숲 묵언 명상
반결제, 의정 스님 ‘화두첩’ 수여
2월 28일 회향 ‘수행공동체’ 모범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겨울 저녁 공기가 매섭던 지난해 12월 9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청풍루에 50여 명의 불자들이 가부좌를 틀었다. 오후 6시 30분을 알리는 종성 뒤로, 도량을 가르는 죽비 소리가 울렸다.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동안거 참선정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정진’은 호산 스님이 취임 후 매년 안거 때마다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남달랐다.

봉선사는 흔히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세조의 능침사찰, 교종본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봉선사의 뿌리는 교학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종본찰의 종풍 위에 선종의 수행 정신을 함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봉선사다.

특히 2025년 동안거와 2026년 하안거는 선명상센터 완공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행과 포교,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다

입재식에서 호산 스님은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회고했다. 혹한 속 하루 한 끼 공양, 14시간 이상 정진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호산 스님은 “그때의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전법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대중과 함께 정진하는 힘으로 교구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스님의 선언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안거 기간 산문 밖 출입을 최소화하고 아침에는 ‘우리말 금강경 특별 정진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청풍루에서 불자들과 좌복에 앉았다. 교구장 스님이 직접 이끄는 안거는 그 자체로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기본으로 돌아가다…간화선 교육

입재 후 첫 일주일은 간화선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참선 자세와 호흡, 화두 드는 법 등을 다시 짚었다. 초심자에게는 입문의 시간, 오랜 신도들에겐 점검의 시간이었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 30분이면 청풍루에는 퇴근길 직장인과 수업을 마친 학생, 80대 노보살님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고요함 속에서 오후 8시까지 정진을 이어 갔다. 첫 주 법문 이후 3주간은 실참 위주로 진행됐다. 말은 줄고, 좌선 시간은 깊어졌다. 다시 일주일간 법문을 듣고, 또다시 실참. 호흡과 화두가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광릉숲을 걷는 90분, 묵언 명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정진이 시작됐다. 광릉숲 6km 구간을 90분간 걷는 묵언 명상이다. 1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른 행렬이었다. 적게는 50명부터 많게는 80명이 참석했다. 2월 21일 진행된 마지막 걷기 명상에는 상월청년회와 상월청년합창단도 함께했다.

눈이 얼어붙은 겨울 숲길은 미끄러웠다. 호산 스님을 선두로 사미 스님들이 앞뒤에서 대중을 외호하며 길을 살폈다. 보림선원을 한 바퀴 돌아 산길로 발걸음을 옮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열기가 올랐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규칙적인 숨소리, 나무 사이로 번지는 햇살. 걷기 명상은 곧 몸으로 화두를 드는 수행이었다.

2013년부터 봉선사 안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김길상원(84) 불자는 “매일 하는 참선도 좋지만, 이렇게 묵언 속에서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감격스럽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안거를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행의 불씨, 화두를 받다

반결제일인 2월 7일에는 봉선사 보림선원 유나 의정 스님(전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 법상에 올랐다. 대중에게 직접 적은 화두첩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를 주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주인공! 심(心)이라고도 하며 불성(佛性)이라고 하고 자성(自性)이라고도 하는 주인공이 무엇이고? 이 뭣고?”

의정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으로 점철된 세계를 근본에서 해결하고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은 스님에게 받은 화두를 수행의 불씨로 삼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해제, 그리고 또 다른 시작

2월 28일, 80여 일의 동안거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처음 좌복에 앉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호흡은 한결 고르게 내려앉았다. 매일 같이 울리던 죽비 소리, 광릉숲의 발걸음, 화두를 든 채 맞이한 저녁 시간이 수행의 시간으로 켜켜이 쌓였다.

회향식에서 호산 스님은 대중들에게 안거증과 참가증을 수여하고, 윤희수·김금순·김소자·이경애·권준희 불자에게는 정진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호산 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거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정진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안거는 해제를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10분, 20분이라도 화두를 챙긴다면 하안거 때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구장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앉고 함께 걷고 함께 화두를 든 이번 동안거는 ‘수행공동체’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청풍루를 나서는 대중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품은 화두는 묵직했다.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봉선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수행으로’ 나아가고 있다.

